무안군, 실시간 악취 감시시스템 구축

상반기 2대 이어 무안읍·청계면에 2대 추가
현장출동시간 최소화로 민원대응 향상 기대

무안군은 늘어나는 축산 악취민원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무인악취 포집기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악취는 발생 특성상 국지적으로 발생하여 소멸하므로 그동안 민원이 제기되어도 악취 포집과 원인 파악에 어려움을 겪었다.

이에 따라 군에서는 올해 상반기에 사업비 5000만원을 투입하여 포집기 2대를 무안읍과 청계면에 설치하였으며, 민원 대응을 위해 12월에 2대를 추가 설치하였다.

포집기는 원하는 시간에 원격 및 수동으로 악취포집이 가능하여 악취가 많이 발생하는 취약한 시간인 밤과 새벽시간대에 즉시 대응이 가능하다.

군은 앞으로 악취발생 빈도와 민원해소 추이 등을 분석해 설치 위치를 이동해 점검할 방침이며, 특히 악취 민원이 1년 이상 지속되고 악취배출허용기준이 3회 이상 초과되는 축산농가의 경우 '악취관리지역 또는 신고대상 악취배출시설로 지정'하여 악취방지법의 엄격한 기준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금년 8건의 악취검사를 시행하고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2건에 대해 개선을 권고했다"며"내년에는 무인악취 포집기를 활용한 악취 단속을 강력하게 추진하여 농촌 마을의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무안=이기성 기자

"영암 역사를 한곳에"…영암군 기록관 개관

영암군 공공기록물 체계적 보존 관리 토대 마련

영암군은 지난 24일 전동평 군수와 군의회 의장, 의원 및 실과소장 등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영암군 기록관 개관식을 코로나 19 방역지침에 따라 간소하게 개최했다.

영암군 기록관은 민선7기 군수 공약사업으로 지난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사업비 30여억원을 투입하여 3개년간 추진한 사업으로 군본청인근에 부지면적 635㎡에 연면적 918.5㎡, 지상 3층 규모의 건물로 신축되었다.

군에 따르면 기존 보존서고는 그 공간이 협소하여 실과소 및 읍면의 기록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없는 상태가 됨에 따라 기록물에 대한 통합 보존, 관리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영암군 기록관 건립을 추진하게 되었다.

개관하게 되는 영암군 기록관에는 기록열람 및 작업실, 행정자료실, 북카페, 보존서고, 그리고 1층에서부터 3층 계단벽면에 "영암 100년의 기록"이라는 주제로 방문객을 위한 영암 100년의 기록사진이 전시되어 있다.

영암군 기록관에는 약 20여만 권의 일반문서와 행정박물, 도면, 시청각기록물 등을 보관할 수 있는 이동식 서가(모빌랙)97동이 설치되었으며, 비전자기록물 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기록물 등록 및 이관, 평가 및 폐기 정수점검, 열람 및 대출 등 기록물 관리 전 과정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였다.

영암군 기록관 관계자는 "앞으로 공공기록물의 효율적 보존 관리를 위하여 중요기록물에 대해서는 DB 구축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며, 공공기록물의 체계적인 관리를 통하여 군민의 알 권리 충족 등 기록정보서비스제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영암=조대호 기자

목포 동부시장, 원산지 표시 최우수시장

올바른 원산지 표시로 광주·전남 전통시장 20개소 중 1위 선정

목포 동부시장이 광주·전남 18개 시군 소재 전통시장 20개소 중 원산지 표시를 가장 잘 이행하는 시장으로 선정됐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남지원 목포신안사무소(이하 농관원)는 지난 10월부터 11월까지 약 한달에 걸쳐 광주·전남 전통시장에 대해 서류심사와 현장평가를 진행한 결과 목포 동부시장을 최우수시장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최우수시장에 선정된 동부시장은 지난 22일 상장과 함께 100만원 상당의 부상을 수여받아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올바른 원산지 표시를 통해 믿고 구매할 수 있는 시장으로 인정받았다.

오명석 동부시장상인회장은 "어려운 시기지만, 상인 모두 철저한 원산지 표시로 소비자의 믿음을 사게 되었다. 앞으로도 원산지는 물론 꼼꼼한 품질 관리로 전통시장 활성화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한편, 농가원에서는 소비자들에게 농식품을 구입시 원산지 표시가 없거나 의심될 경우 전화(1588-8112) 또는 인터넷(www.naqs.go.kr)으로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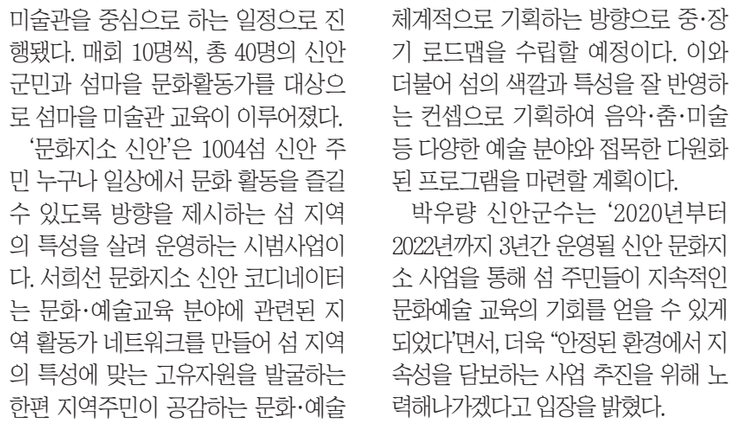
목포=박정수 기자

영광군, 지방세 체납액 관리 평가 전남 1위

영광군은 전라남도 주관 '2020년도 지방세 체납액 관리' 시책 평가결과 최우수 시군으로 선정되어 상사업비 6천만 원을 획득하는 쾌거를 이루었다.

금년 초 신종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침체로 기업의 부도, 폐업 및 생계형 체납 증가로 지방세 징수 여건이 열악한 여건 속에서도 우리 군 징수팀에서는 체납액이 발생한 원인을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체납액을 체납유형별로 분류하고 상황에 맞는 맞춤형 체납액 관리를 통해 징수율 등 5개 평가지표를 종합하여 평가한 결과 최고점수를 받아 전라남도 22개 시군에서 전체 1위 성적을 달성하여 군 재정 확충에 기여하였다.

영광=서희권 기자



신안군 '행복 전남 문화지소, 신안' 섬 문화예술 시범 프로그램 성료

지역주민·섬 문화활동가 참여 '섬 미술관 교육' 성료

신안군에서 11월부터 운영한 '행복 전남 문화지소, 신안(약칭 문화지소 신안)' 사업의 시범 프로그램인 '섬마을 미술관 교육' 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다. 코로나 방역과 사회적 거리두기 등 보건·안전 지침을 철저히 지킨 가운데 지난 12월 12일과 19일 양일간 4회에 걸쳐 신안군 흑산도와 압해도, 자은도에서 섬마다 있는 야외 미술관을 중심으로 하는 일정으로 진행됐다. 매회 10명씩, 총 40명의 신안군민과 섬마을 문화활동가를 대상으로 섬마을 미술관 교육이 이루어졌다.

'문화지소 신안'은 1004섬 신안 주민 누구나 일상에서 문화 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방향을 제시하는 섬 지역의 특성을 살려 운영하는 시범사업이다. 서희선 문화지소 신안 코디네이터는 문화·예술교육 분야에 관련된 지역 활동가 네트워크를 만들어 섬 지역의 특성에 맞는 고유자원을 발굴하는 한편 지역주민이 공감하는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기획했다. 또한 섬의 환경이나 여건에 적합한 맞춤형 프로그램으로 구성하고 착오 없이 진행하는 데 역할을 다했다.

문화지소는 올해 시범사업을 진행한 성과를 보강하고 발전시켜 전문화된 문화 인력 양성에 힘쓰는 한편 지역의 문화자원을 활용하는 섬마을 미술관 작품 전시, 로컬 체험 활동 등 누구나 쉽게 접하여 즐기는 프로그램을 체계적으로 기획하는 방향으로 중·장기 로드맵을 수립할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섬의 색깔과 특성을 잘 반영하는 컨셉으로 기획하여 음악·춤·미술 등 다양한 예술 분야와 접목한 다원화된 프로그램을 마련할 계획이다.

박우량 신안군수는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년간 운영될 신안 문화지소 사업을 통해 섬 주민들이 지속적인 문화예술 교육의 기회를 얻을 수 있게 되었다'면서, 더욱 "안정된 환경에서 지속성을 담보하는 사업 추진을 위해 노력해나가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기동취재본부

함평군, 청소년정책 우수기관 선정

국무총리상 수상

함평군은 여성가족부가 실시한 전국 청소년정책 분석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전남에서 유일하게 국무총리 표창과 220만 원의 상금을 수상했다고 24일 밝혔다.

여성가족부는 올해 전국 17개 시·도와 114개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각 지역별 청소년정책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평가했다.

이번 평가에서 함평군은 ▲학교밖 위기청소년 지원 ▲청소년 보호지원 체계 구축 ▲청소년유해환경 개선 및 보호활동 등의 청소년 사회안전망 구축의 공로를 인정받았다.

또한 직업체험, 취업지원, 방과후 아카데미 등의 맞춤형 지원 사업을 통해 지역 청소년들의 역량을 강화한 것도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상익 함평군수는 "청소년 권익보호와 복지증진이 곧 지역의 미래 경쟁력"이라며, "앞으로도 관련 정책과 지원을 지속 확대하면서 지역 청소년 모두가 함평을 넘어 국가 인재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함평=김광춘 기자